

AUTHOR 양낙홍

TITLE 루터의 정치사상

IN 개혁신학과 교회

vol.5 (December, 1995): 105-128

루터의 정치 사상

양 낙 흥

역사적으로 정치 권력에 대한 루터의 견해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어 왔다. 그는 “기독교인의 자유” 교리로써 평민들의 마음에 자유 사상을 불어넣은 후 농민 봉기를 무참하게 진압할 수 있는 신학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통치자들의 편을 든 보수적 반동분자라는 비난을 받은 적도 있었다. 루터는 농민들의 막대한 사정과 자유에 대한 그들의 예민한 감정에 적절히 공감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¹⁾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루터의 저술들을 종합적으로 편견없이 검토할 때 전적으로 공정치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과연 마틴 루터의 정치관은 어떤 것이었으며 특히 불의한 권력에 대해 그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러한 주제에 대한 그의 사상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다른 개혁자들, 즉 칼빈, 닉스, 혹은 베자 등 개혁파 지도자들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

정치의 인정

루터는 정치 질서를 인정한다. 즉 정치, 정부, 권력, 법률, 경찰, 군대 같은 정치 제도들을 하나님의 경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점에 있

1) Manfred Hoffman, "Martin Luther : Resistance to Secular Authority," *Th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Theological Center* 12 (Fall 1984/Spring 1985), 40.

이 그는 칼빈과 일치하고 세계패파와는 구별된다. 정치 질서의 성경적 근거로 그는 롬13:1-2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는 본문과, 뵤전2:13-4의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약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강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는 본문을 지적한다.²⁾

루터는 세속 권력과 법률이 창세기의 기인과 아벨 시대부터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기인이 하나님을 향해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창4:14)라고 말했다면 사실을 근거로 루터는 당시 살인자를 죽이는 법의 존재를 유추한다. 루터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명령,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나”(창9:6)라는 명령도 살인자를 처형하라는 법률의 제정이며 그것을 수행할 세속 권력을 인정한 것이라 주장한다.³⁾ 루터는 또 모세 율법이 세속 권력의 존재와 역할을 지지한다고 본다. 출21:14의 “사람이 그 이웃을 침범 모살하였으면 나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는 본문이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하는 본문이 경찰, 사법 제도, 형사적 처벌권 등의 존재에 대한 인정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루터는 예수의 가르침, 이를테면, “...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마26:52)도 창9:6과 같은 의미라고 주장하며⁴⁾ 세례 요한의 발언 중에도 군대의 존재를 정당화하고 나아가 의

로운 전쟁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눅3:14에서 세례 요한을 찾아와 어떻게 해야겠는가고 묻는 군인들에게 요한은 결코 군을 떠나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베드로도 고넬료에게 군인의 직업을 버리라고 권면한 적이 없다고 루터는 지적한다. 누가는 고넬료를 “경직한 사람”이라 칭찬했지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이유로 비난하지 않았다.⁵⁾

이러한 본문들에 근거해 루터는 군인이라는 직업이 그 자체로서 “신성하고 비본” 것이라 주장한다. 죽이거나 탈취하는 것이 걸음으로 사랑의 행위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사람들은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 아니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사랑의 행위”다.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팔, 다리, 눈, 귀를 잘라내는 것은 걸음으로 전인해 보인다. 그러나 몸 전체를 위해서는 그것이 사랑의 행위인 것처럼 전쟁은 몇몇 참격자들을 죽임으로써 나머지들을 비롯한 수많은 인명, 재산, 평화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의 일이다. 전쟁에서 칼을 휘두르고 사람을 죽이는 손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다. 그것은 교수형, 고문, 사형이 다 “하나님의 심판”인 것과 마찬가지로 루터는 주장한다.⁶⁾

군인의 직업을 문제삼지 않는다는 것은 의로운 전쟁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세계패파와는 달리 루터는 절대적 비폭력주의를 찬성하지 않는다. 어거스틴과 칼빈처럼 그는 “전쟁을 피하려 하나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합법적 정당방어가 된다”고 주장한다. 만일 무력 사용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면 행악자를 벌하기 위해 검을 쓰는 것도 잘못 것이라는 논리다.⁷⁾ 그의 견해에 의하면 전쟁은 “모든 종류의 행악자 집단을 단번에 징벌”하는 것이다. 백성들은 비참시에 군주를

2) Martin Luther, “Temporal Authority: To What Extent It Should Be Obeyed?”, *Luther's Work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7), ed.

Robert C. Schultz, vol. 45, 85-6.

3) *Ibid.*, 86.

4) *Ibid.*, 87.

5) Luther, “Whether Soldiers, Too, Can Be Saved,” *Works*, vol. 46, 97-8.

6) *Ibid.*, 96.

7) *Ibid.*, 98.

따라 전쟁에 임해서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바쳐야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아니라 “무기의 구성원”, 즉 “신민으로서의 의무”이다. 작곡이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적군을 죽이고 불태우고 약탈하고 부상을 입히는” 것은 “기독교적이며 사랑의 행위”이다. 그러나 전쟁이 승리로 끝난 후에는 행복한 자들에게 지배를 베풀고 평화를 약속해야 한다. 루터는 그러나 불의한 전쟁에는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는다. 만일 군주가 잘못이라면 백성들은 전쟁을 거부해야 한다.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는 아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⁸⁾

두 왕국론

어떤 사람들은 루터의 견해에 반론을 제시했다. 다음의 본문들을 볼 때 성경은 정치와 정치 질서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것이었다.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겔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마5:38-41).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롬12:19)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마5:44),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반대자들은 이 본문들이 힘에 의해 유지되는 정치 질서를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⁹⁾

이러한 반론에 루터는 두 왕국론으로 응수한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설교자들의 “말씀”을 통해 다스리는 나라이고 세상 나라는 세속 권력자들이 “강”을 통해 다스리는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진실한 신자들”로서 이들에게는 세속 권력과 법이 불필요하다. 그들 마음 속에는 성령이 계시어서 누구에게도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의를 당하면 그것을 견디며 심지어 죽음까지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일 것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곳에는 소송, 법정, 재판관, 형벌, 법, 칼 따위가 필요없다.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불법한 자를 위함”이기 때문이다(딤후1:9). 법은 불신자들에게 하여금 그들이 행하는 것이 불법이며 당장 중지해야 하는 것임을 보여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참 신자는 법률이 요구하는 이상의 정의를 행한다. 이들을 위해서는 영적 권세를 세우셨다. 즉 그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주인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요18:36-7).¹⁰⁾

그리므로 일천 정치 질서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본문들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루터는 주장한다. 그 성취들의 교훈을 좇아 그리스도인들은 법에 호소하지 말아야 한다.¹¹⁾ 법은 불신자들, 즉 세상 나라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일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명예 속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무한정 양보하며 모든 불의를 참아내지 세속 법률에 호소해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서는 안 된다. 그들은 하늘 나라를 소유하고 있으

9) “Temporal Authority,” 87.

10) Ibid, 101, 88-9.

11) Ibid., 92.

므로 땅의 나라는 그것을 소유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산상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의도는 모세의 율법을 폐해 세속 권력을 금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세속 권세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는 성구들과 상충되지 않는다.¹²⁾

그러나 루터의 두 왕국론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그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현실 속에서 완전히 그리고 확연히 구분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양자는 그처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법률에 호소할 수 있다고 보는 칼빈의 견해가 훨씬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달리 말해, 루터는 신자 속에 있는 부패의 요소를 간파하여 마치 참 신자들은 결코 범법하는 일이 없는 완전 성화된 사람들과 같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중생한 신자들도 종종 말씀을 거역한다.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세속법을 어기는 일이 없고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항상 세속법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것을 행한다고 상정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루터는 때로 세속법을 어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참 신자가 아니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당시에 이미 루터의 두 왕국론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세속 권세나 법이 기독교인에게는 불필요하다면 왜 바울은 롬13:1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명했으며 베드로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벧전2:13-14)고 말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 질문에 대해 루터는 다음과 같이 설득력이 약한 답변을 시도한다. 진실한 기독교인은 이웃을 위하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행한다. 즉 세속 권세가 세상에 필요하므로 기독교인들도 세속 권세에 가까이 복종한다. 선인이 보호를 받고 악인이 더 악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도 세속 권세에 복종한다는 것이었다.¹³⁾ 여기서 루터는 정치와 정치 질서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는 결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함으로써 정치를 필요악 정도로 격하시킨다. 죄가 없는 곳에서는 정치도 불필요하다는 루터의 이러한 정치관은 정치가 창조 때부터의 질서라는 칼빈의 정치관과 큰 차이가 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세속 권세가 필요없다면 어떻게 그들을 지상에 서 통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루터는 약간 축점을 벗어나 보이는 대답을 한다.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권위가 있으면 안 된다... 그들은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해야 한다”(롬12).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 외에 지배자가 없고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힘, 소유, 명예”를 가진다. 다른 사람들 위에 있기를 원하지 않고 서로 복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슨 권위가 있을 수 있는가?¹⁴⁾ 여기서 루터는 권위라는 것이 상하의 신분 문제이기 이전에 질서의 문제라는 점을 간파하고 있다. 권위란 단지 계급의 설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불가결하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루터의 답변에 불만족했던 사람들은 계속 질문했다. “그러면 성직자들이나 주교와 같은 종교적 권세는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해 루터는 성직자들의 다스림은 “권위나 권력”의 문제가 아니고 “봉사와 직함”의 문제라고 답했다. 그들은 결코 다른 신자들보다 “높지” 않다. 그들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일 뿐이다. 그들은

12) Ibid., 102.

13) Ibid., 93-4.

14) Ibid., 117.

어떤 외적 힘이 아니라 신앙으로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말씀” 외에 는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없다.¹⁵⁾

두 왕국론에서 루터는 참 신자 외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불신자들은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법피는 다른 권세”, 즉 세속 권세를 세우셨다. 그는 불신자들을 칼에 복종시키셨다. 그래서 그들이 실사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게 하심으로 “외적인 평화”가 유지되게 하셨다. 만일 이러한 법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서로를 잡아 먹어 버렸을 것이며 세상은 악으로 가득 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루터의 주장이었다.¹⁶⁾

그러나 제세례파와는 달리 루터는 그리스도인이 공직을 맡아도 좋다고 생각했다. 예수는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하셨는데 기독교인이 계속 권세에 몸담고 악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루터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신자들 사이에서는 권력을 휘둘 수 없고 권력 행사의 대상은 비기독교인들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만일 사형 집행인, 경찰, 재판관, 군주, 제왕이 모자라고 그리스도인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직책을 맡음으로써 “세상에 필요한 통치권이 경시되거나 약해지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다.¹⁷⁾

세속 권력의 한계와 정교분리

루터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인정한다. 즉 그는 국교 제도에 반대한다. 이 점에서는 로저 윌리엄스(Roger Williams)나 찰스코프

15) Ibid., 117-8.

16) Ibid., 90-91.

17) Ibid., 95, 103.

트 같은 제세례파와 견해가 일치한다. 국가는 영적인 문제에 간섭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종교 문제는 개인의 양심과 판단에 맡겨야 한다. 세속 권력이 “영혼을 위한 법”을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것은 영혼들을 “잘못 인도하고 멸망”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온다. 군주들과 주교들이 백성들에게 어떤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사람들은 자기의 영적 운명을 걸고 종교를 택한다. 그러므로 자기가 믿는 바가 진리인지 자신들이 스스로 조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대신 천국이나 지옥에 갈 수 없으므로 그들이 나 대신 믿어 줄 수도 없고 강제로 나에게 어떤 것을 믿거나 안 믿게 할 수도 없다. 믿고 안 믿는 것은 개인의 양심의 문제이며 세속 권력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는 것이다.¹⁸⁾

그래서 루터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할 것을 주장한다. 소위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물론 이 때 종교란 기독교의 여러 교파들, 그 중에서도 카톨릭이나 루터란이 하나의 선택이다. 국가는 백성들이 무엇을 믿든 자유롭게 허락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그는 어거스틴이 도나투스파의 진압을 주장할 때 제시했던 이분과 반대 입장에 선다. “마음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약한 양심을 가진 백성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고 마음에 없는 고백을 강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상은 면세”(Thoughts are tax-free)다.¹⁹⁾ 그리하여 루터는 심지어 이단이나 이교도들의 종교의 자유마저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단이나 이교도들이라도 세속 권세가 간섭하거나 억누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거의 현대의 종교 자유의 수준에 육박하는 주장이다. 그는 이단을 “결코 힘으로 제어할 수 없다”고

18) Ibid., 108.

19) Ibid., 108.

주장한다. 이면에 대항해서 싸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이 단은 칼로 자르거나 불로 지지거나 물 속에 수장시킬 수 없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다.²⁰⁾ 영혼을 다루는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황제가 아무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가령 황제가 카톨릭을 강요하고 개신교를 반대하더라도 그것에 복종할 필요는 없다.

루터는 군주들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이다. “왕제 이래로 지혜로운 군주는 보기도문 보석과도 같고 정의로운 군주는 더욱 드물다. 군주들은 일반적으로 지상의 사람들 중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며 가장 악한 부류의 사람들이다.”²¹⁾ 그리하여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군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영혼 구원과 같은 신성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로부터 어떤 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다. 만일 어떤 군주가 지혜롭고 정의로우며 기독교인이라면 그것은 “가장 큰 기적들 가운데 하나”이며 “하나님께서 지상에 배부신 가장 값진 은혜”이다. 그러나 대개는 다음의 상귀들이 세상의 현실을 잘 대변하고 있다.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지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라니”(사13:4),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호13:11).²²⁾

군주들이 이처럼 일반적으로 악한 이유는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루터는 본다. 이 점에서 그는 칼빈과 견해가 일치한다. “세상은 너무 사악하기 때문에 현명하고 정의로운 군주들을 많이 가질 자격이 없다. 개구리들은 황새를 지키를 왕으로 삼겨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전쟁이나 폭군의 침해를 입어 마땅한 죄인들이다.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죄에 대한 징벌을 받으려하지 않고 그것에 저항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한을 들어 다스리게 함은 백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음”이다 (욥34:30에 대한 루터의 번역).²³⁾

20) Ibid., 114.

21) Ibid., 113.

22) Ibid., 113-4.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한 복종의 한계

1521년 보름스(Worms) 칙령의 반포로부터 1546년 쉬말칼트 전쟁의 발발에 이르기까지 독일 개신교도들은 찰스 5세가 종교개혁을 뿌리뽑기 위해 물리적 수단을 동원할지 모른다는 끊임없는 위협 속에 놓여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개신교 군주들과 제국 도시들이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 황제에게 저항하는 것이 과연 합법적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저항이라는 것이 복음의 교훈과 양립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윤리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이었던 것이다.

황제에 대한 루터의 저항론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 25년 동안 변천의 단계를 겪었다. 사실상 이 문제에 관한 한 루터는 삼 단계의 점진적이지만 격심한 입장 변화를 체험한다. 그것은 주로 당시의 역사적 상황의 압력과 법률가들의 논증의 집중하는 영향 때문이었다.²⁴⁾ 첫째 단계는 1530년까지의 시기인데 이 시기에 루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황제에게 저항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는 자기 생애의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이 원칙을 고수했다. 1522년 포레더릭 선제후(Frederick the Wise)에게 보낸 유명한 편지에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선제후로서 당신은 관원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황제께서 당신의 도시들과 영토에서 자신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제국 헌법에 따라 행할 권리가 있으며 당신은 황제의 권세에 저항하거나 그것에 방어하거나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23) "Soldiers, too," 109.

24) W. D. J. Cargill Thompson, "Luther and the Right of Resistance to the Emperor," *Church, Society, and Politics*(1975), D. Baker, ed., 162.

그것을 방해하고 저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실사 그것이 나를 체포하거나 죽이는 것이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역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²⁵⁾

심지어 폭군에 대해서도 루터는 저항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무런 폭군적인 통치 하에서라 하더라도 억압을 참고 견디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이었다. 1530년에 쓴 길고도 조심스러운 편지에서 루터는 이렇게 주장한다. “성경에 따르면 통치자가 의롭게 행하느냐 불의하게 행하느냐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자기 통치자에게 저항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일이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불의한 무력, 특히 자신의 통치자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해야 한다.”²⁶⁾

스와의비와 농민들의 12조 선언에 답하는 글에서 루터는 대중 봉기를 분명히 정죄하고 있다. “통치자들의 악이 여러분의 무질서와 반역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²⁷⁾ 백성들에게는 군주의 악행에 대한 처벌권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반란자들의 편에 서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은 ‘원수같은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롬12:19)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란은 자기 자신의 재판장이요 보복자가 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²⁸⁾ 폭군은 처벌되어야 하고 자리에서 쫓겨나야 한다. 그러나 폭군을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

25) Luther's letter to Elector Frederick, 5 March 1522, WA Br. 2, No. 455, 456. Recited from Thompson's "Luther and..."

26) WA Br. 5, No. 1536, 258-61; Scheible, *Widerstandsrecht*, no 14, 60-63. Recited from Thompson, 180.

27) Luther, "Admonition to Peace, A Reply to the Twelve Articles of the Peasants in Swabia," *Works*, vol. 46, 25.

28) Luther, "A Sincere Admonition to All Christians to Guard against Insurrection and Rebellion," *Works* 45, p. 63.

이 허실 일이라고 주장하는 점에서도 루터는 칼빈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폭군을 처단하시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폭군들은 백성들이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재앙을 당하고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폭군에게 보복하려 할 필요는 없으며 그렇게 해셔도 안 된다. 루터는 군신의 관계를 부자의 관계에 비유하면서 칼빈과는 동일하고 다스리는 반대되는 결론을 추출한다. 아버지가 잘못한다 해서 가족들이 그를 집에서 쫓아내거나 죽이지는 않기 때문이다.²⁹⁾

백성들이 폭군을 처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있어 적어도 초창기의 루터는 더할 수 없이 완강하다. “복음 전파를 금하고 백성을 압제하는 체후와 영주들을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데 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백성들은 폭력으로 회경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첫째는 “검을 드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말씀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폭력을 사용해서 권력을 탈취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³⁰⁾ 둘째, 악을 벌할 책임은 칼을 든 세상 통치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불의를 당하는 사람들은 칼을 들고 시정하려고 스스로 나서서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이다. “세상의 자연법도 우리는 자신의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는 없고 스스로 보복하려 해셔도 안 된다고 가르친다.”³¹⁾ 통치자들에게 대한 저항은 백성들이 스스로 복수하려는 것이며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는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항”하는 일이라는 것이 루터의 주장이다.

루터는 심지어 통치자들이 재판식 때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을 깨뜨린다 하더라도 백성들은 그를 처벌하거나 폐위해서는 안 된다고

29) "Soldiers," 108-111.

30) "Admonition to Peace," 25.

31) "Whether Soldiers..." 107-8; "Admonition to Peace..." , 25.

주장한다. 그 이유는 통치자들이 백성들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의로운 왕이 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루터는 설득력이 다소 약해 보이는 논리를 전개한다. 그는 왕이 하나님과 백성 양자 모두에 대한 약속을 깨뜨릴 때 그를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이 아니라 제 3의 통치자라고 주장한다.³²⁾ 제 삼자가 나타나 양편 모두의 주장을 들은 후 폭군을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다. 그는 계약 파기에 대해 계약 당사자가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찬성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루터는 군주와 백성들 사이에 진정한 계약이 성립한다고 믿지 않는다.

루터가 군주의 직무 유기가 신민들에게 반란의 권리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또 하나의 이유는 “누구든지 검을 잡는 자는 검으로 망하기 때문이다.” 외적 자유에 대한 요구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미화하는 것은 성경, 자연법,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신성모독적인 일이라는 것이다.³³⁾ 신민들은 기독교인의 자유를 공민적 자유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영적 자유는 영혼에 관련된 은혜의 선물이지 외적 조건이 아니다.³⁴⁾

“군인들도...”에서 루터는 폭군들에게 무력 항거를 하지 말아야 하지는 또 하나의 이유를 제시한다. 그것은 폭군들이 간드릴 수 있는 것은 “영혼”이 아니라 “단지 재산, 처자, 신체” 뿐이라는 것이다.³⁵⁾ 이것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마 10:28)는 본문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거나 이원론적이라는 인상을

32) “Whether Soldier,” 113.

33) Luther, “Admonition to Peace,” Works 46.

34) Luther, “Against Robbing and Murdering Hordes of Peasants,” Works, vol. 46, 49.

35) Ibid., 108.

준다. 실제 루터는 지주 내세, 영혼은 중요하고 물질, 육체, 현재는 무가치하다는 인식을 표현한다. “스외비아 농민들의 12조 선언에 답”하는 글에서도 루터는 농민들이 “불공평을 면하기 위해 권력과 부를 원”하고 있으나 “복음서는 이 세상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한다. 복음서가 현재에서의 우리의 생명에 대해 말하는 것은 고통, 불공평, 심지어, 인내, 그리고 현재의 생명과 현재적인 부에 대한 경멸 뿐이다”라고 주장한다.³⁶⁾ 그리스도인이 현재적 여건의 개선에 마음을 쓰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민들에 대한 루터의 회유는 실패로 끝났다. 농민 봉기는 폭도들의 난동으로 변했다. 그러자 그는 “농민 폭도들의 강도질과 살인에 반대함”(1525)이라는 글을 통해 통치자들에게 반란을 진압하라고 단호하게 요청한다. “통치자들은 농민들을 먼저 재판에 회부할 필요없이 처벌하고 도둑함으로써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하려는 부름을 받았다.”³⁷⁾ 농민 봉기를 진압하라는 그의 권유는 너무 강경하여 오랫동안 불의와 억압의 희생자가 되어 온 농민들의 입장에 대해 너무 비동정적이며 그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준다. 즉 불의한 권력에 대해 백성들은 한없이 오래 참아야 하나 그것에 저항하는 백성들의 폭력에 대해서는 진인할 정도로 단호하다는 점에서 루터는 힘있는 자들의 편에 섰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었다. 실제 루터의 이 때 태도로 말미암아 많은 농민들이 루터에게서 등을 돌리고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 어쨌든 루터는 농민 반란의 철저한 진압을 요구하는 자신의 입장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농민들은 영혼과 육체를 죽임에 처할만한 대죄를 지었다. 통치자에 대한 순종의 서약을 깨뜨림으로써 “하

36) “Admonition to Peace,” 35.

37) Luther, “Against the Robbing and Murdering Hordes of Peasants,” Works 46, 52.

나님의 심판을 자취"하고 있다. 둘째, 그들은 수도원, 성들을 강탈, 노략하고 있으므로 누구든지 먼저 아무 까리낌없이 그들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 관원들이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시기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보응"해야 한다는 말씀(롬 13:4)처럼 소수의 폭도들을 처단하여 다수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미친 개"를 마땅히 죽여야 하는 것처럼 정의를 행하는 일이다.³⁸⁾

루터에 의하면 반란이란 단순한 살인보다 훨씬 더 큰 악이었다. 그것은 대사회처럼 온 땅을 황폐하게 하고 고이와 과부 등의 엄청난 피해자가 생겨나게 하기 때문이다.³⁹⁾ 만일 농민 반란이 성공한다면 돈뿐이라도 가진 사람은 모두 고통을 당했을 것이며 여자와 과 자녀들이 능욕을 당했을 것이며 자기들끼리 서로 죽임으로써 세상의 "평화와 안전"이 사라졌을 것이라고 루터는 주장했다.⁴⁰⁾ 일반적 살인자들은 정부라는 버리는 두고 그 지체, 혹은 재산만을 공격한다. 이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벌의 직무를 부여받은 머리가 그 살인자를 처벌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은 그를 처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반역은 머리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다. 머리가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 머리가 심판을 내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명령을 받지 않은 자들도 달려가 반역자들을 죽여야 한다.⁴¹⁾ 그는 이렇게 강조했다.

나는 목사지만 만일 나의 상전이 터키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위협에 빠진 것을 본다면 나의 영적 직분을 잊어 버리고 죽을 때까지 쫓고 벨 것이다.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으로 직행할 것이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인 터키인인 그리스도인인 어떤 사람들 속에서도 반역은 지배나 법령에서 재판을 받을 가치가 없는 범죄이다. 반역자는 이미 재판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은 자이며 그러므로 누구나 그를 처형할 수 있다.⁴²⁾

한 마디로 반란은 가장 "악마적"인 것이라고 루터는 단언한다. 그러므로 폭도들에게는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다. 그는 반역자들에게는 하나님도 자비를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 성경적 근거는 "주 하나님과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들의 재앙이 속히 임할 것이니라"(잠24:21-22)는 말씀이다. 왕은 공경을 받고 반역자들은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다.⁴³⁾

여기서 루터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별한다. 전자는 은총과 자비의 나라지만 후자는 냉정한 법의 통제, 즉 분노와 징벌만이 있는 나라다. 후자는 자비로와서는 안 되고 "엄격하고 모질게" 하나님의 진노를 발해야 한다. 그 성경적 근거는 "살인자를 내 단에서 끌어내고 자비를 보이지 말라"(출21:14)는 것이다. 폭도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죽는 것은 "최고의 축복된 죽음"이다.⁴⁴⁾

농민 반란자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해야 하는 세번째 이유는 그들이 복음의 미명 하에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 형제단"으로 자처함으로써 끔찍한 "독신죄"를 범하고 있고 "악마를 삼키고" 있다는 것이 루터의 주장이었다.⁴⁵⁾

루터는 "악한 자를 때치지 말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 의 진노에 맡기라"는 그리스도의 교훈이 폭군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

38) Ibid., 49-50.

39) Ibid., 50.

40) "An Open Letter," 71.

41) Ibid., 80.

42) Ibid., 81-2.

43) Ibid., 65-6.

44) "Against Robbing," 53-4.

45) Ibid., 51-2.

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분은 우리가 항상 참으며 모든 일이 바로 잠깐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고통, 또 고통, 십자가, 또 십자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불행과 악을 견디며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불행과 악을 제하는 그리스도인의 방법”이라는 주장은 정치적 수동주의의 전형처럼 들린다.⁴⁶⁾

루터는 폭군에 대한 신민들의 대응 태도에 대해 논하면서 미치 못할 의외와 일면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그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상을 준다. 그 때문에 그는 때로 절대적 평화주의와 비폭력주의를 주장하는 제세레파처럼 들리는 때가 있다. “불의에 대항해 싸우지 말고 자신을 보호하지 말고 생명과 재산을 포기하고 누구에게든 원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양보하라. 그리스도인은 누가 자기 물건을 강탈하는 가져가는 속여 빼앗든 혹은 자기를 학대하든 잠잠히 버려 둔다. 그는 이 땅에서는 순교자이기 때문이다.”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적 운명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비판적이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에서 행복이나 평안을 기대할 수 없으며 오직 불행과 고난만을 분깃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재앙을 만나더라도 그 이상의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것에 감사할 뿐이지 현존하는 재앙, 즉 폭군이 주는 고통에 대해 불평하거나 그것을 시정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악마의 권세 아래로 던지셨다. 그 결과

우리는 여기서 낙원을 가질 수 없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는 신체, 처자, 재산, 명예에 가해지는 온갖 종류의 불행 뿐이다. 한 시간 에 몇 가지 이하의 재앙이 일어나 우리가 무사히 살아남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리 말해야 한다. 그 시간 동안에 온갖 재앙을 보 내지 않으셨으니 말이다.⁴⁷⁾

요컨대, 루터는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는 절대 항거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항해 전쟁하거나 봉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⁴⁸⁾

루터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무력 저항을 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런 면에서 루터는 초기에는 상급자에 대한 하급자의 무력 저항을 어떤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테면 영주는 대영주, 즉 왕, 황제, 제후 등에 대항한 전쟁을 할 수 없다. 하급자는 비록 불의한 침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상급자들이 하는 대로 허용해야 한다. 통치 권력에 대해서는 힘이 아니라 진리의 고백으로 저항해야 한다.⁴⁹⁾ 이런 루터의 사상이 그후 양자 대전을 통해 나타난 독일 민족의 국가에 대한 일사불란한 복종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상대가 동등하거나 열등한 지위의 소유자이거나 타국이라면 먼저 그에게 정의나 평화를 제의해야 하고 상대가 그것을 거절할 때에 비로소 힘에 의한 정당방위가 합법적이다 (신20:10-12).⁵⁰⁾

그러나 때로 루터는 위의 권위에 대한 저항이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결과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한다는 인상도 준다. 이런 점에서는 실용주의적 고려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47) "Whether Soldiers," 117.

48) Ibid, 118.

49) Ibid, 116-8.

50) Ibid, 120-1, 125.

46) "Admonition to Peace," 28-9.

비록 반란이 실제적으로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무익한 진행 방법이다. 그것은 결코 바리던 개선을 가져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반란은 무분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대체로 죄인들보다는 무죄한 사람들을 더 해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추구하는 명분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반란은 옳은 것이 될 수 없다. 그것은 항상 개선보다 손실을 더 많이 가져온다. '나쁜 것이 더 나빠진다는 것이다.'⁵¹⁾

전체적으로 1530년의 마지막 무렵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루터의 입장은 어떤 변화도 감지되지 않았다. 1529년에 종교개혁을 무력으로 방어해서는 안 된다는 자신의 종래의 입장을 조용히 포기했던 것이다. 그 외에는 그의 견해에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방어 동맹이 그 자체로서 불법적인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지만 그것이 황제를 향하지는 말아야 하며 순수하게 방어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했던 것이다.

루터의 저항권 사상의 변화

1530년의 아우구스부르크 회의(The Diet of Augsbourg)는 독일의 정치적 상황을 바꾸어 놓았다. 칼스 5세가 아우구스부르크 교백을 거부함으로써 개신교도들은 다시 한번 황제의 직접 개입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저항에 대한 루터의 태도에 변화를 야기한 것은 바로 이 국면의 전환이었다. 개신교 군주들과 그들의 법률 지문들의 압력 하에서 그는 황제에 대한 무력 저항이 합법적인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만 했다. 결국 루터는 법률가들의 논증에 설득당하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반대를 철회했다. 그는 역시 가들에게 토고 선언(Torgau Declaration)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문서에 동의했다. 토고 선언은 루터와 정치 이론 발전사에 있어 결정적 전환점으로 인식된다. 왜냐하면 이 시점으로부터 루터는 황제에 대한 저항에 관한 자신의 노골적 반대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고 선언은 에메모호한 문서였다. 그는 법률가들의 논증에 대한 자신의 공식적 반대를 철회했으나 스스로 저항에 공개적으로 앞장서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신학자인 자신의 일이 아니라 법률가들의 일이라는 조심스러운 중도 입장을 택했다. 토고 선언 후에도 그는 저항 사상으로부터 거리를 두는데 조바심을 내었으며 법률가들과 정치가들이 결정하는 바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기를 거부했다.⁵²⁾

루터의 입장이 명백히 변했다는 최초의 표시는 1536년 신체후 존 프레드릭(John Frederick)의 요청에 의해 쾰른 루터의 공식적 견해에 나타난다.⁵³⁾ 페는 교황 바울 3세가 이듬해 만투아에서 종교회의가 소집되도록 결정함으로써 개신교도들에게 새로운 위기가 닥쳤을 무렵이었다. 개신교도들이 염려했던 것은 그 종교회의가 개신교도들의 호소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황제에게 새로운 침공의 구실을 제공하게 되지 않나 하는 것이었다. 이 때 루터는 자신의 초기 견해뿐 아니라 토고에서 취했던 입장에도 급진적인 결별을 고하게 된다. 그들은 이제 이전의 중립적 입장을 버리고 황제에 대한 저항을 공공연히 찬성하게 되었다. 루터의 견해에 의하면 "부음은 자연 법이 아니면 세속 정부에 의해 인가된 모든 자연스럽고 공정한 보

52) WA Br. 6, 16-7, 36-7을 보라.

53) CR 3, No. 1458, cols 126-31. Recited from Thompson, 191.

51) Luther, "A Sincere Admonition..." 63.

호와 방어를 허용한다.” 이제 루터는 1530년에 자신이 그토록 강하게 반대했던 자항에 관련된 자연법 논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세속 통치자들의 임무에 대한 그의 인식이었다. 그는 이제 “모든 불의한 힘에 대항해서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에 대한 외적 예배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이 각 군주들의 임무라고 천명했다. 그는 이 임무가 구약에 나오는 경건한 왕들의 모범 및 제 2계명에 의해 군주들에게 주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군주들은 자기 영토 내에서 “동급의 위치에 있는 군주들뿐 아니라 황제의 칙공에 대항하여 자신의 그리스도인 신민들을 보호함으로써” 참 교리들을 심고 지탱해야 하며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는 자들을 도우실” 것이다. 그는 이제 만일 개신교도들이 아직 상소 중인 동안 황제가 그들을 공격하면 합법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법적 논증을 주저없이 받아들였다. 루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훨씬 더 과격해졌다. “만일 황제가 개신교도들을 공격하면 그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교황의 사주를 받아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 만일 자기 자신의 이유 없이 군주들을 공격하는 황제가 교황의 전쟁에 자신을 연루시키는 것이라면 그도 동일한 운명을 각오해야 한다. 교황을 위해 싸우는 자는 군주들, 양이든 아니면 황제든 누구를 막론하고 격퇴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황제는 황제가 아니며 교황의 병사이자 강도이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진정한 황제는 교황이기 때문이다. 만일 교황이 전쟁을 걸어온다면 그는 “광분한, 그리고 귀신들린 괴물처럼 저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감독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며 폭군도 아니고 다니엘이 말한 바 모든 것을 황폐케하는 짐승이기 때문이다.”

“교황의 병사”(miles papae)라는 개념 외에도 루터는 1529년과 1530년에 수락하기를 거부했던 헌법적 논증, 즉 황제는 절대적 절대

군주가 아니며 만일 그가 제국의 관습과 법률을 지키는 데 실패하면 독일 군주들은 황제에게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는 주장을 채택했다. 군주들은 황제와 협력하여 제국을 통치하고 있으며 황제는 절대적 왕이 아니며 선제후들의 의사에 반하여 제국의 형태를 변경시킬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만일 이 원리가 민사상의 문제에 적용된다면 그것은 황제가 교황과 머리의 유익을 위해 제국의 헌법을 전복하려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⁵⁴⁾

만일 황제가 교황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뜻에 의해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는 식의 일반적 폭군이라면 그에게 저항하는 것일 합법적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루터는 역시 함축어 답한다. “그러한 악도 저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잘 확립된 교리와 교회를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국의 헌법은 군주들에게 황제에게 저항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일곱 선제후는 사사로운 개인들이 아니라 황제와 동격의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황제를 머리로 하는 제국을 구성하는 한 부분들이기 때문이다.⁵⁵⁾

맺는 말

초기의 루터의 저항 이론의 문젯점들은 이미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그는 현재와 내세,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극단적으로 이분화하여 그리스도인은 불의에 의한 현세적 불이익이나 지상적 손실에 대해 무감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에서 초기의 루터는 회람적 이원론의 영향을 탈피하지 못했다. 둘째, 루터는 주로 개인들 사이의 사사로운 관계를 위해 의도된

54) WA Br. 8, No 3297, 366-7, WA 39, 2, pp. 39-44. Recited from Thompson, pp. 194-5.

55) WA 39, 2, 77-8.

산상설교의 교훈들을 공적인 영역에까지 끌어들이며 폭군과 시민들의 관계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했다. 그러나 공적인 영역에서는 로마서 12:4-5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칼빈주의적 전통이다. 세계, 그는 로마서 13:1-2에 있는 권세에 대한 순종의 명령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여 위에 있는 권세가 권력을 남용하여 불의를 행하는 경우에조차도 순종해야 하며 저항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에 있는 권세에 의한 불의의 시정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다. 영적인 전쟁은 영적인 무기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하며 어떤 물리적 힘의 사용도 불가하다는 절대적 평화주의의 입장은 제세회와 적 법세를 풍긴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진리를 수호하시리라고 확신했지만 하나님은 자주 인간들을 통해서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점을 간파했다.

보나벤투라의 신비신학

최덕성

서론

보나벤투라(Bonaventura, c. 1217-1274)는 아거스틴의 신학전통에 충실했던 보수적 사상가로서 중세 기독교인들의 영적이고 신비적인 삶을 잘 대변한 인물이다. 성 프란시스의 영성에 충실했던 그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보았다. 그의 스승 프란시스는 인간은 철학이나 형이상학적 추상에 의한 시편적 활동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가르친 바 있다. 그래서 프란시스 이후 많은 수도사들이 그의 경건을 따라 사색하며 신비적 삶을 살았는데 보나벤투라 역시 프란시스가 걸어간 광야의 가난한 순례자의 삶의 길을 글로 기술했다.²⁾

보나벤투라의 신비신학은 하나님과의 신비적 합일을 위한 정화(Purgation), 조명(Illumination), 합일(Union)의 점진적 단계를 통한 영혼상승의 길을 제시했다. "후임의 길"이라고 일컫는 방법을 따라 관조를 통해 영혼이 "무지의 승고함"에 기쁨으로 거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영적결혼이 이루어지는 신일합일, 신성화(神聖化,

1) "보수적"이란 아리스토텔레스철학에 입각한 아케나스의 진보신학과는 달리 아거스틴 사상에 충실했음을 뜻한다.

2) 보나벤투라는 프란시스 수도회 총장으로 활동했으며 총장이 되기 전에 아케나스와 함께 대학 교수로 일하다가 수도사들과 사제들의 갈등에 말려들어 대학으로부터 추방된 바도 있다.